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용감한 바둑이



우리 집 바둑이가 늑대와 싸운다

날렵한 바둑이가 늑대 눈탱이를

먼저 물었다

늑대는 발톱도 크고 이빨도 무섭다

그래도, 바둑이 꼬리를 봐라

전혀 기가 죽지 않았다

싸움은 안 봐도 알겠다

늑대가 꼬리 내리고

내빼고 말았을 거다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암각화는 돌이나 금속의 뾰족한 끝을 이용하여 긋거나 쪼아서 외곽선을 만들고, 갈거나 쪼아 파내거나 하는 몇 가지 방법으로 완성한다. 청동기가 나오기 이전에는 주로 돌을 이용하여 암각화를 새겼기 때문에 윤곽선이 굵고 투박하다. 그러나 투박한 가운데에서도 각 사물이 지니는 성격과 특징을 정확하게 표현하였다. 이것은 사물에 대한 관찰이 예리하고 수많은 반복과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장인이 있었다는 뜻이 될 것이다. 이 그림에서도 늑대의 발톱과 주둥이 그리고 개의 꼬리가 치켜 올려진 각각의 특징을 단순하고 투박하지만 숙련된 솜씨로 표현하였다.

이 그림은 늑대와 개가 싸움을 하는 단순한 그림일까? 아니면 다른 뜻도 있을까? 혹시, 그 집에 늑대가 자주 출몰하니 개가 늑대를 이기는 그림을 그려 놓아서 늑대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부적(符籍)과 같은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늑대가 나타나도 물러서지 않고 늑대와 맞서는 용감한 개가 있었는데, 주인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히 저세상으로 떠난 용감한 바둑이를 기념하는 기념비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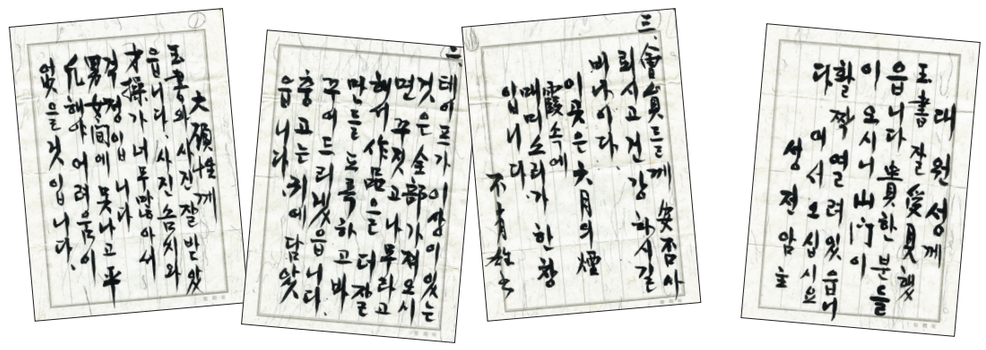
용감한 바둑아! 요새 우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코로나 귀신을 만나서 온 세상이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있단다. 제발! 코로나 좀 물어 가다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⑭ 철웅 스님

그리운 유쾌, 상쾌, 통쾌 법문



〈서신 1〉
대원성께
옥서(玉書)와 사진 잘 받았습니다. 사진 솜씨와 재조가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남녀 간에 못나고 평범해야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테이프가 이상이 있는 것은 전부 가져오시면 꾸짖고 나무라고 해서 작품을 더 잘 만들도록 하고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충고는 귀에 담았습니다.
회원들께 안부 사뢰시고 건강하시길 비나이다. 이곳은 유월의 연하(煙霞) 속에 매미소리가 한창입니다.

〈서신 2〉
대원성께
옥서(玉書) 잘 수견(受見)했습니다. 귀한 분들이 오시니 산문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전암 주.



걸보기에 엄격했지만 안으로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철웅 스님.

철웅 스님이 대구 파계사 성전암에 계실 때였다. 연꽃모임 야외법회를 가게 되었다. 당시 스님은 여러 가지로 불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쉬운 말로 인기가 최고였다. 스님을 뵙기 위해 전국에서 불자들이 몰려들었다.

당시 스님이 대중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님의 법문 때문이었다. 스님의 법문은 책 속에서 온 법문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온 법문이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웃기기도 했던 스님 특유의 법문은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어서 귀에 쏙쏙 들어왔다.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문들이었다. 빡빡한 세상살이에 찌든 마음이 말끔히 청소되는 스님의 법문은 유쾌, 상쾌, 통쾌해서 법문 내내 실컷 웃으며 듣는 법문이었다. 불교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심자 대중도 스님의 법문에 금방 빠져들었다. 하지만 결코 법문의 결론은 가볍지 않았다. 선지를 품은 선어들이 등장할 때면 법문은 더 없이 깊고 깊었다. 금방이라도 한소식이 잡힐 것처럼 마음이 깊어지곤 했다. 그야말로 선사를 만나는 시간이었다.

기골이 장대했던 스님은 겉으로 보기에 엄격해 보였지만 안으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 나는 늘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며 가는 곳마다 만나는 스님마다 사진 찍기를 좋아했다. 법회가 끝난 후 스님을 모시고 회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고, 스님의 독사진도 찍었는데, 스님도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셔서 싫은 내색 없이 응해주셨다. 덕분에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스님께 편지를 올릴 때면 스님의 사진들을 함께 보내드리곤 했다. 스님은 그때마다 늘 따뜻한 답장을 주셨다. 재주가 많다며 덕담에 유묵까지 보내주시기도 했었다. 직설화법의 법문과 카리스마에 스님을 어렵게 생각하는 대중도 있었지만 안으로 따뜻한 정을 품고 산 스님이었다. 또한 농담처럼 던지는 가벼운 말에도 선지가 있었고 자신의 화두가 확실했던 선사였다.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뵐 때마다 가슴에 선명하게 남는 선지식이었다.

연꽃모임이 초창기였던 당시에는 우리처럼 젊은 불자들이 많지 않을 때여서 연꽃모임이 스님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으며 신행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큰스님들과의 인연 덕으로 연꽃모임도 잘 키우고 행복한 신행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고, 그 힘으로 또 다른 모임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었다. 철웅 스님을 비롯한 많은 스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가져본다. 지금도 사진 속의 스님을 뵐 때면 그 날의 기억들이 따뜻하게 일어난다.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民衆醫術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 민중의술의 특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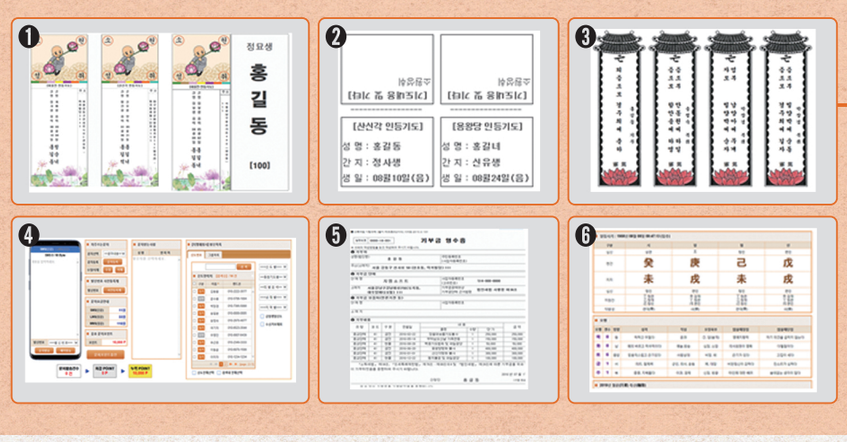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GmSoft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